

# 완도군, 해조류 블루카본 정책 속도 낸다

### ‘바다숲 탄소 거래 시범사업’ 6개소 선정...전국 최다 해조류 탄소 흡수량 측정...탄소크레딧 수익성 검증



완도 다시마 양식장 전경. 사진제공=완도군청

완도군이 바다숲 시범사업 공모에 대거 선정되면서 해조류 블루카본 기반 조성에 속도를 내게 됐다.

22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바다숲 탄소 거래 시범사업’ 공모에 전국 최다인 6개소가 선정됐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주관하며 해양수산부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바다숲 탄소 거래 사업’은 바다숲 조성과 해조류 양식을 통해 해조류가 흡수하는 탄소량을 측정하고, 이를 탄소 크레딧(가상 화폐)으로 전환해 보는 시범 사업이다.

완도군은 전국 사업 대상지 20개소 중 가장 많은 6개소가 선정됐으며,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청산리 모서리까지 더해 총

7개소에서 탄소 거래 시범 사업 대상지가 됐다.

선정된 마을은 ‘바다숲 조성’ 유형에 고급면 상정리, 소안면 미라리, 생일면 급곡리와 ‘어업인 블루 크레딧’ 유형에 노화읍 내리, 신지면 월부리, 소안면 동진리 등 총 6개소이다.

해당 마을 어촌계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바다숲(갈피)과 1ha 규모의 해조류 양식 시설을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해조류의 탄소 흡수량을 측정해 탄소 크레딧이라는 새로운 수익 가능성을 검증하게 된다.

사업 선정으로 완도군은 탄소 중립 실현, 해조류 탄소 거래 사업을 선도하는 ‘블루카본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됐으며, 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블루카본 사업은 시행 초기 단계로 기존 해조류 양식 수익과 블루카본 기반 수익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경제성을 예측해 보는 움직임을 진행 중이다.

특히 사업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진하며, 기존 면허지 존치를 전제로 유류 양식장이나 해역을 추가 확보해 전용 양식장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해조류 탄소 흡수량을 측정하고 이를 크레딧으로 전환·거래해 지역민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이른바 ‘바다 연금’의 기반으로 군은 향후 제도화와 시장

형성을 거쳐 전 군민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기본 소득형 모델’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는 해조류 블루카본 인증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군에서는 기존 양식장도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등에 지속 권의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군의 블루카본 정책은 기존 산업 대체가 아닌 확장하는 개념의 중장기 전략이다”며 “사업 실효성을 확보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 전라병영성 축제, ‘떡깨비’와 봄 활기 더했다 7일간 특별 이벤트...전년 대비 매출 12% 증가

800년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제29회 전라병영성축제’ 현장에 강진군 공공배달 앱 ‘떡깨비’가 지역 상권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등판해 축제의 열기를 배양했다.

22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병영성축제 기념 떡깨비 할인 이벤트를 통해 총 주문 건수 4336건, 총 매출액 1억1904만원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성적을 받아들였다.

이는 전년 동기 매출액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로, 축제가 지역 배달 소비 진작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이벤트는 축제가 시작되는 주부터 7일 동안 할인 이벤트를 실시해 평일과

주말에 걸쳐 할인 금액을 달리한 ‘맞춤형 혜택’을 제공했다. 특히 축제 기간 내내 떡깨비를 통한 주문이 이어지며 치킨, 피자, 족발 등 주요 가맹점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강진 떡깨비가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국내 최저 수준인 1.5%의 중개수수료와 가맹점 가입비·광고료 전면 무료라는 ‘착한 정책’ 덕분이다.

현재 가맹점 370개소, 누적 회원 7862명을 확보하며 지역 내 핵심 소비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강진 떡깨비는 향후 지역 축제와 연계한 상생 모델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강진=이진욱 기자 sa4332252@

### 영암, 지역 산업 연계 맞춤형공교육 운영

#### 조선·자동차·스마트농업 등

영암군이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2026 지역산업 연계 맞춤형공교육’을 본격 운영한다.

22일 영암군에 따르면 3월 지역 초·중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한 결과, 세한대학교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세한대학교는 지역 중학교 5개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준비를 마쳤다.

이번 교육은 이론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현장 체험과 실무를 결합한 과정으로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조선·자동차 산업체험, 스마트농업 교육, 기초과학·디지털 전환(DX)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지역 주력 산업을 직접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 산업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

## “절반이 공짜...땅끝해남 반값여행 오세요”

### 최대 50~70% 상품권 환급 청년층 환급률 확대 적용

해남군이 고물가 시대 여행객들의 가벼운 주머니를 채워줄 파격적인 여행 지원책을 내놓았다.

22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문화관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한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 선정으로, 해남 방문객에게 여행비의 절반 이상을 돌려주는 ‘땅끝해남 반값여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은 해남을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이 현지에서 결제한 금액의 50%를 모바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개인은 5만원 이상, 2인 이상 팀은 10만원 이상 소비 시 신청 가능하며, 환급 한도는 개인 최대 10만원, 팀 최대 20만원이다.

특히 청년층(만 19~39세)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 신청자는 환급률이 70%까지 확대 적용돼 개인은 최대 14만원, 팀은 최대 2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해남군 거주 관광객이다. 다만 인접 지자체인 강진·영암·완도·진도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5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해남공룡대축제.

사진제공=해남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여행 기간 중 해남의 주요 관광지나 축제장 등 2개소 이상을 방문한 인증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업소나 주유소, 유흥업소, 카센터 등 여행과 무관한 업종의 결제 내역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은 공식누리집(www.haenam50.kr)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여행 시기에 따라 총 3차례 걸쳐 접수를

받으며, 1차 접수는 오는 27일 오전 9시에 시작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앞서 이 사업을 추진한 타 지자체의 경우 접수 시작과 동시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며 “해남 방문을 계획 중인 관광객들은 신청 일자를 미리 확인해 서둘러 접수해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 반값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 신안, 고수온 대응 품종 전환 기후변화 대응 지원 공모사업

신안군은 최근 해양수산부가 시행한 기후변화 대응 시범양식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총 3억원을 투입해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장 피해 최소화는 물론 어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고수온에 강한 양식 품종으로 전환을 이끄는 사업이다.

신안군 해상가두리 어류 양식은 조피볼락에 편중돼 있지만 조피볼락은 한계수온이 28도로 매년 고수온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수온에 강한 농어, 감성돔, 부세 등 신품종으로 전환하고자 시범양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이번을 계기로 조피볼락 단일 품종에서 다품종 복합 양식 체계로 전환을 유도하고, 신품종 시범양식 성공 사례를 구축, 확산시켜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고수온 리스크를 줄여 양식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양식 비전 제시와 신 소득원 창출로 지역 양식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



## 목 | 허리 | 어깨 | 무릎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치료전문



# 서울휴병원



‘수술도! 비수술도! 서울휴에서!’ 광주 남구 회재로 1154 (구 엔젤산부인과) **062) 710-5000**